

지역 소식통

정읍시, 청년 농업 경영인
지원사업 접수...27일까지

정읍시가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청년 창업 농과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청년·후계 농업인 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농업 인재들이 농업 분야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에 뜻이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초기 정착지원금과 농지, 창업자금, 정책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들이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되면 독립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8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농림사업 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후계 농업경영인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농업인으로 서류평가 및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축사 시설 점검 당부

정읍시는 겨울철 이상기후와 화재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축사 시설 점검을 당부했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 가축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와 영양 공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난 3년간 축사 화재의 약 40%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등 화재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 축사 틈새를 막아 가축이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보온을 위해 밀폐된 축사는 하루 중 바깥 온도가 높은 시간에 맞춰 적정하게 환기한다.

한우와 젖소가 찬물을 마시지 않도록 물 온도를 20도(C) 내외로 유지하고, 사료량을 10~20% 늘리면 추위에도 몸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맞춤형복지 실현 최선

복지예산 총 1천6억원 투자, 위기가구 발굴·지원 2021년 3월 31일까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부안군은 2021년 군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예산액 923억보다 77억이 증가한 복지예산 총 1천6억원을 투자하여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보장 등 군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부안형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실직, 폐업,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위기가구를 위해 7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마을회관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보다 더 촘촘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읍면에 복지직 및 간호직 인력을 확대 배치해 복지·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마을회관지기, 협의체 위원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주민이 주도하고 군민이 행복한 희망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복지포인트는 2021년도부터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대상자를 5년이상 근무자에서 3년이상 근무자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에 대한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는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지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

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총 94억원을 투입해 전년 대비 66명이 증가한 2,659명의 어르신에게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노노케어, 경로당 방역관리원 등 26개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342명의 응급돌봄대상을 선정하여 어르신 대내 활동·화재·가스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응급안전장비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2021년내에 300대 추가 확보로 총 642대를 설치해 어르신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정부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44명으로 확대 선발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월 최대 30만원)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위생분야에서는 작은식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비 36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19개소에 대한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성수식품 등 수거 검사와 위생등급제 평가지원, 어린이급식소관리 등 철저한 사전 홍보활동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위해 우려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은 올해 청년·신중년 총 16명규모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한 기업에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부안군, 전북형 취업지원사업 추진

청년·신중년 일자리 창출 참여 기업, 참여자 모집

부안군은 청년·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2021년 전북형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청년취업지원(만 18~39세) 11명과 신중년취업지원(만 40~64세) 5명 등 총 16명 규모로 진행되며 청년·신중년층에게 정규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월 50~65만원, 신중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월 7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사업에 참여한 청년·신중년층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년간 최대 300만원(신중년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부안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급여 182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8일까지 군청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이메일(renoshin@korea.kr) 접수로 신청해야 하며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신중년층 구직자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시민안전 위한 발 빠른 제설작업 '호응'

민·관 협력 주민피해 최소화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비치

정읍시에 최고 20cm의 폭설이 내리며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정읍시가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해 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했다.

7일 유진섭 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은 전날 밤부터 내린 폭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설작업에 나섰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눈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유 시장과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정류장과 주민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보도 등의 취약구간을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에 매진했다. 또, 주민들의 능동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지역 내 설치된 제설할 곳곳마다 염화칼슘과 모래주



지난 7일 유진섭 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은 버스정류장과 주민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보도 등의 취약구간을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을 했다.

머니를 비치하는 작업도 펼쳤다. 도로 제설반은 이날 새벽 4시부터 제설 차량 13대를 동원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도로면 결빙 예방에 힘을 쏟았다.

또한, 굴삭기와 덤프 등 민간장비 41대를 활용해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했으며, 이는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신기술 지역식품업체 이전식

고창군과 베리엔바이오토포식품연구소 등이 협력 개발한 제품기술이 지역 식품업체에 이전되면서 상품화 가능성이 높고 있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군수실에서 고창지역 2개 식품업체(임성규네 고구마, '고창곰뱅이')가 참여한 가운데 기술 이전식이 진행됐다.

이전된 기술은 '2020년 지역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차별화 제품개발 지원사업'으로 고창군 출연기관인 (재)베리엔바이오토포연구소와 지역의 가공업체가 연계 협력해 숨어있는 고창의 우수한 식품 원료인 간 건강에 좋은 곰뱅이와 식이섬유 등이 풍부한 고구마 줄기 등을 이용해 개발된 제품기술이다. '임성규네 고구마(고창군 아산면, 임성규 대표)'에선 고구마 종순 생산 이후 버려지는 '고구마 줄기'를 활용한 천연발효식초'를 개발했다. 고구마 줄기의 섬유질이 다량 함유

돼 맛이 부드럽고, 복분자, 인삼, 생강 등 다양한 농산물과 접목되면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개발된 제품은 연구소의 가공 장비를 이용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창곰뱅이(고창군 신림면, 대표 신용업)'는 '곰뱅이(꽃병이)와 복분자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 기술이 이전됐다. 당초 고창곰뱅이에서 타지역에 있는 업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의 경우 맛과 제품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맛과 향에 대한 기호도를 높이고 표준화된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유이상 고창군수는 "고창에는 우리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아직 깨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우수한 가공업체들이 많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